

정책 기반 조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

2027년 1인가구 지원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

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「관악구 1인가구 행복정책 수요조사」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함

I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」
- 제2기 관악구 1인가구 기본계획[복지정책과-9514(2025. 3. 5.)]
- 2027년 1인가구 지원 정책 수요조사 계획[복지정책과-29747(2026. 7. 30.)]

II 조 사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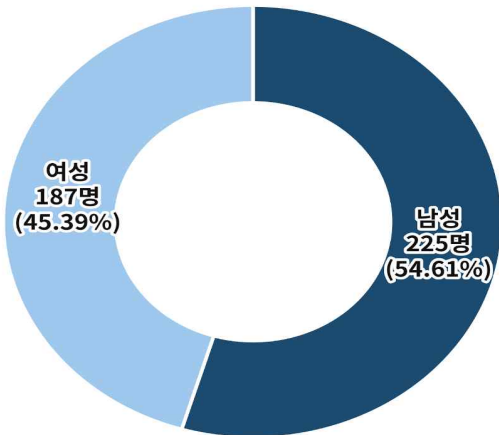
- 조 사 명: 「관악구 1인가구 행복정책 수요조사」
- 조사기간: 2026. 7. 31.(금) ~ 8. 20.(목)
- 조사대상: 관악구 거주 19세 이상 1인가구 400여 명
- 조사방법: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
 - 온 라 인: 네이버폼 및 구글폼 활용
 - 오프라인: 동 주민센터 및 권역별 복지관(5개소) 등 직접조사
- 조사내용: 1인가구의 생활실태, 정책 인식도,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필요성 등 7개 분야 중심 조사

III 응답자 기본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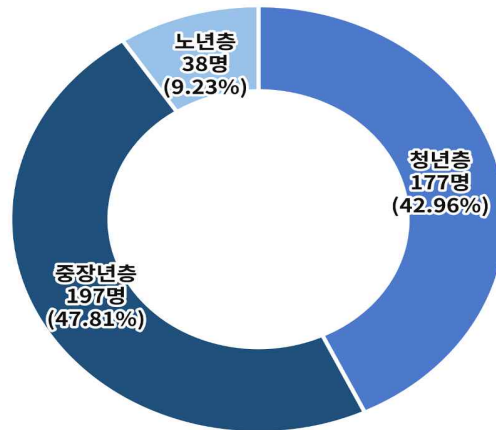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응답 참여인원: 412명(온라인 179, 오프라인 233)

■ 성별, 연령계층별, 권역별 응답 참여인원 현황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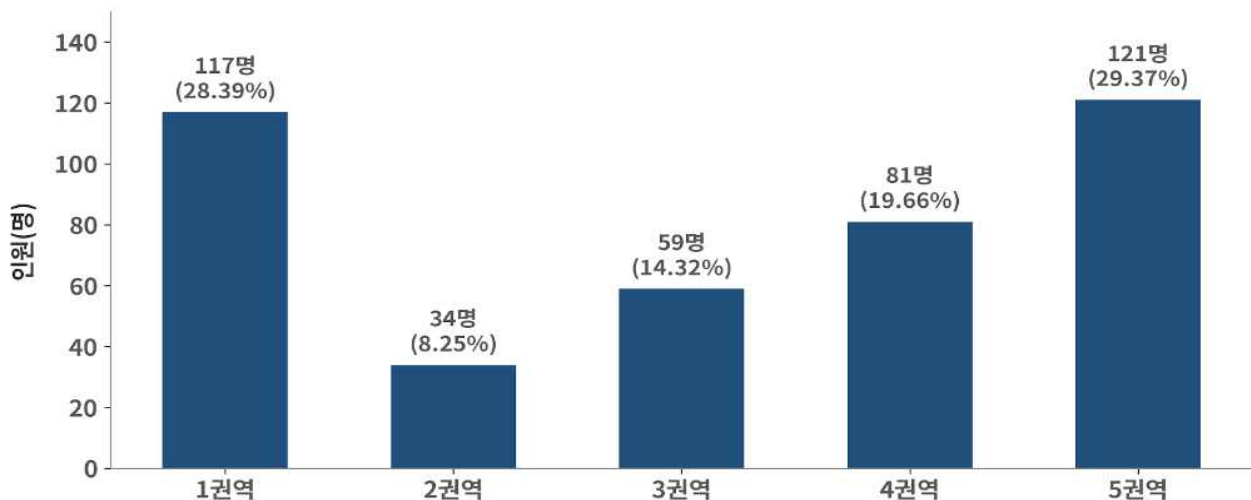
응답자 성별 분포



응답자 연령계층별 분포



응답자 권역별 분포



※ 연령계층 구분: 청년층(만19~39세), 중장년층(만40~64세), 노년층(만65세 이상)

※ 권역별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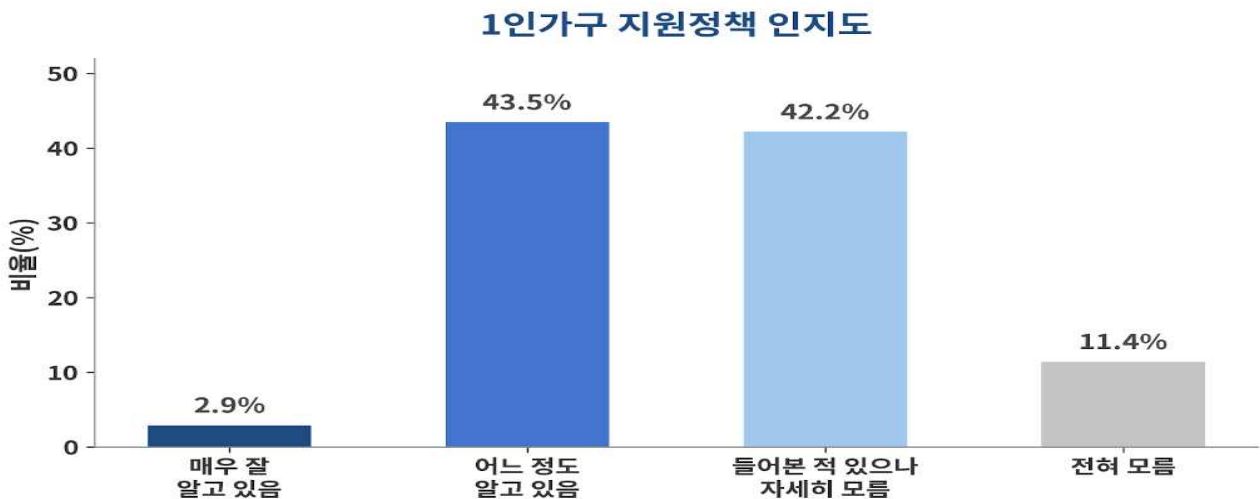
- * 1권역: 보라매동, 신림동, 은천동, 성현동
- * 2권역: 청림동, 행운동, 남현동
- * 3권역: 중앙동, 청룡동, 낙성대동, 인현동
- * 4권역: 신사동, 미성동, 난곡동, 난향동, 조원동
- * 5권역: 서원동, 신원동, 서림동, 삼성동, 대학동

- 성별 참여 현황: 남성 225명(54.61%) > 여성 187명(45.39%)
- 연령계층별 참여 현황
 - 중장년 197명(47.81%) > 청년 177명(42.96%) > 노년 38명(9.23%)
(2026. 7월 말 기준 1인가구 현황: 청년 62.6% > 중장년 22.8% > 노년 14.3%)
 - 1인가구 연령계층별 비율을 고려할 때, 중장년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반면 청년과 노년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했음
- 권역별 참여 현황: 1권역과 5권역 참여 비율이 높음
 - 1권역 117명(28.39%), 2권역 34명(8.25%), 3권역 59명(14.32%)
 - 4권역 81명(19.66%), 5권역 121명(29.37%)이 참여함

IV 정책 수요 조사 결과

정책 인식 및 만족도 분석

○ 정책 인식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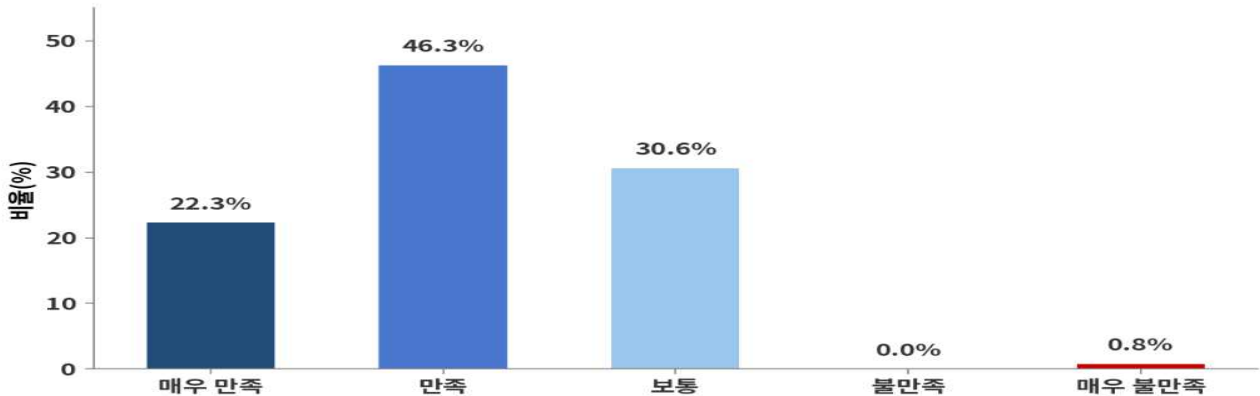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매우 잘 알고 있음	12
2	어느 정도 알고 있음	179
3	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는 모름	174
4	전혀 모름	47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 412명 중 매우 잘 알고 있음·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비율(191명, 46.35%)이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지만 자세히는 모름·전혀 모름의 비율(221명, 53.64%)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도 향상이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○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만족도

이용 경험자 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매우 만족	27
2	만족	56
3	보통	37
4	불만족	0
5	매우 불만족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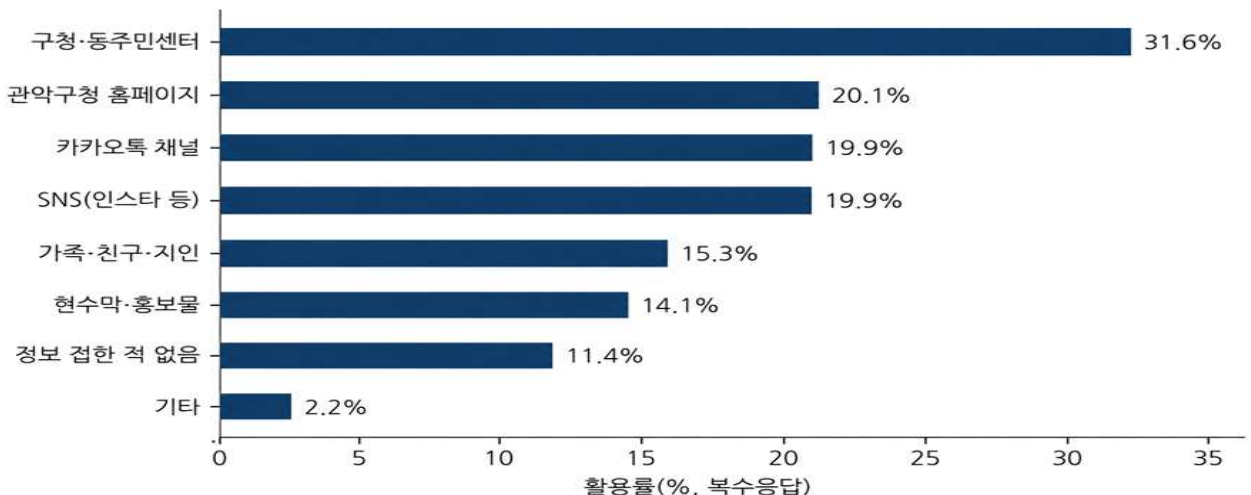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 412명 중 1인가구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있는 응답자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
- 이들 중 '매우 만족만족'의 비율(83명, 68.59%)이 '불만족매우 불만족' 비율(1명, 0.82%)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했을 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'보통'의 비율(37명, 30.58%)도 상당한 편으로, 향후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완점 등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○ 정보 접근 수단

① 전체 현황

정책 정보 접근 경로 - 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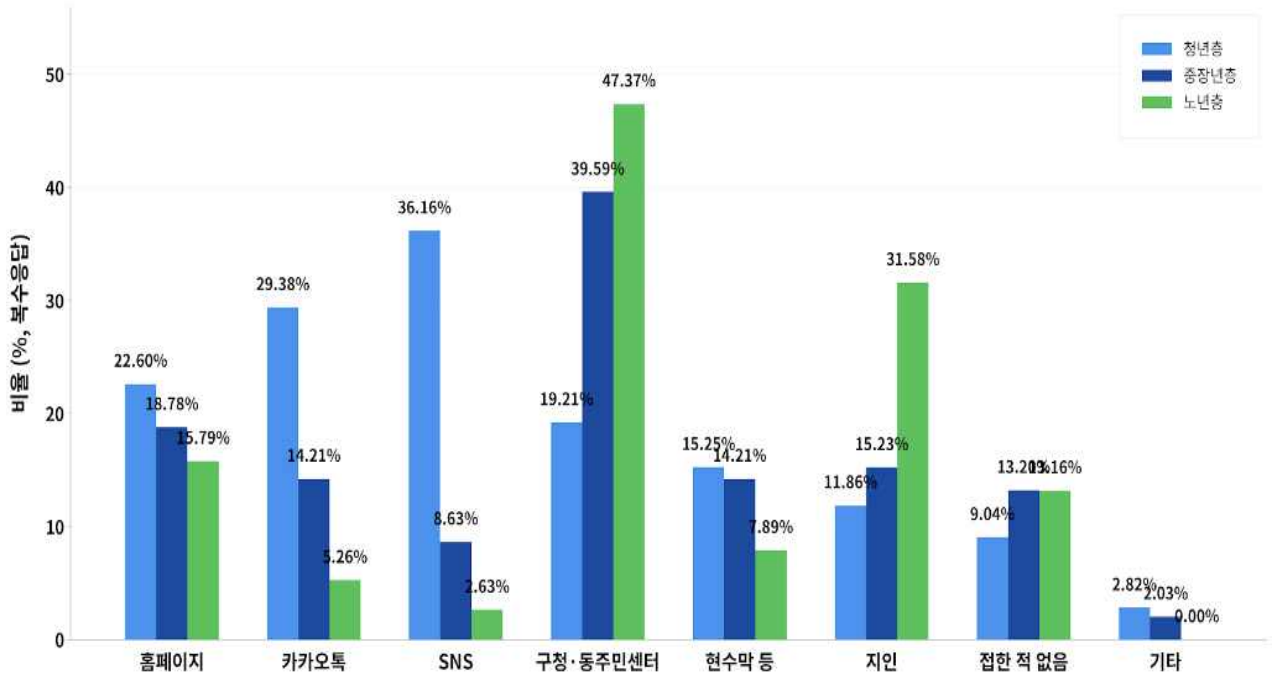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관악구청 홈페이지	83
2	카카오톡 채널(동행톡 등)	82
3	인스타그램 등 기타 SNS	82
4	구청, 동주민센터	130
5	현수막, 홍보물 등	58
6	가족, 친구, 이웃, 지인	63
7	정보를 접한 적 없음	47
8	기타	9

< 결과 >

- 정보 접근의 경우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전체 응답자가 어떤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지 수단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412명 대비 선택 활용 비율을 산출함
- 전체 응답자 중 정보 접근 활용수단으로 **구청·동주민센터가 31.55%**로 가장 높았으며, 그 외 **구청 홈페이지, 카카오톡 채널, 인스타그램 등 기타 SNS 비중 역시 각각 20% 기준**으로 고르게 분포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, 온라인·오프라인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② 연령계층별 현황

정책 정보 접근 경로 - 연령계층별



구분	청년층 (명)	중장년층 (명)	노년층 (명)
1. 관악구청 홈페이지	40	37	6
2. 카카오톡 채널	52	28	2
3. SNS(인스타그램 등)	64	17	1
4. 구청·동주민센터	34	78	18
5. 현수막·홍보물 등	27	28	3
6. 가족·친구·지인	21	30	12
7. 정보 접한 적 없음	16	26	5
8. 기타	5	4	0

< 결과 >

- 연령계층별 정보 접근의 경우, **청년층**은 인스타그램 등의 기타 SNS 같은 온라인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, **중장년층과 노년층**은 구청·동주민센터 방문 등의 오프라인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함
- 이 외 청년층은 동행톡 등의 카카오톡 채널, 구청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, 중장년층은 구청 홈페이지, 가족·친구·지인들을 활용하며, 노년층은 가족·친구·지인,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함
- 이처럼 연령계층별 세부 활용 경향을 살펴볼 때,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오프라인 수단을 먼저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, 청년층은 온라인 수단을 먼저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

분야별 수요조사 결과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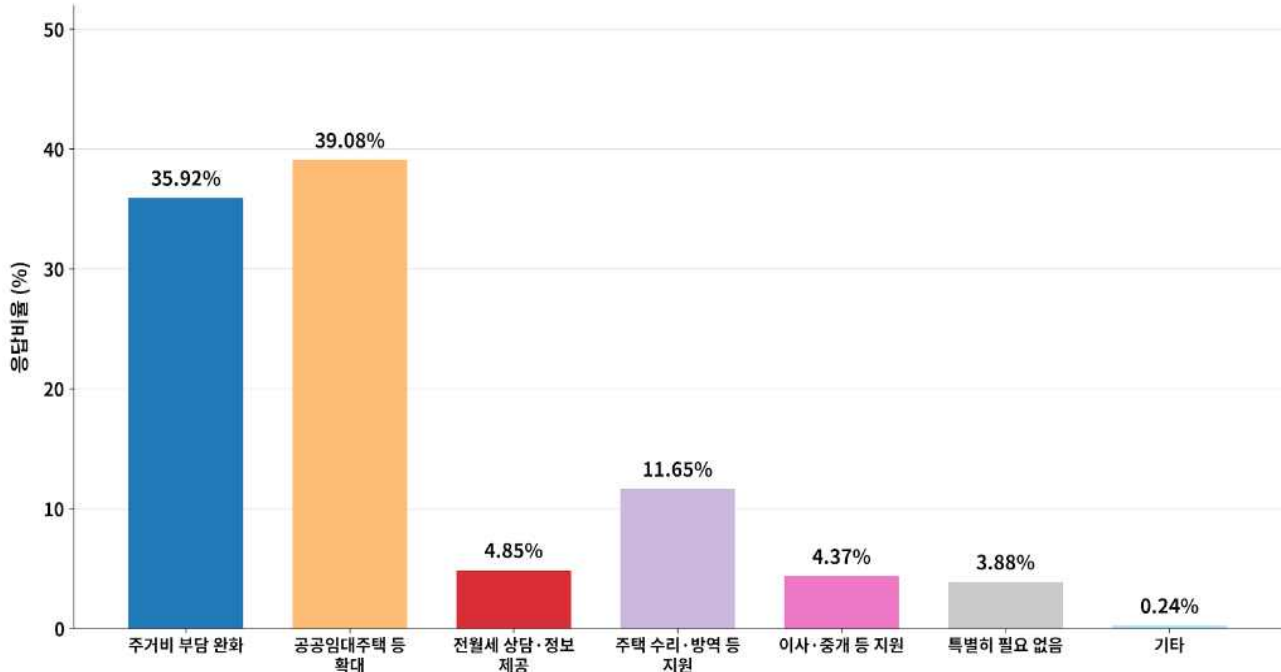
○ 총 평

- ▶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정책수요는 **주거, 일자리 분야**로 나타남
※ 주거(44.90%) > 일자리(21.84%) > 건강(10.68%) > 안전(6.31%) > 돌봄(5.58%) > 관계(5.34%)
- ▶ 관계형성 수요는 낮으나,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거·건강·안전·여가 등 **생활밀착형 사업과 연계한 관계형성 사업 설계 필요**
- ▶ 연령계층별로 최우선 정책수요가 상이하여 **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**
- ▶ 설문 참여인원이 청년층, 중장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적은 만큼, 향후 노년층 대상 정책 수립 시 추가적으로 의견 보완 필요
- ▶ 1인가구 지원정책을 '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음' 비율이 46.4%에 그쳐 **연령계층별 특성에 따른 홍보 전략 필요**

○ 분야별 세부 수요조사 결과

① 주거

1인가구 전체 - 주거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주거비 부담 완화	148
2	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 확대	161
3	전월세 계약 등 상담·정보 제공	20
4	주택 수리, 청소·방역 등 지원	48
5	이사·중개 등 지원	18
6	특별히 필요 없음	16
7	기타	1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39.08%인 148명이 **주거비 부담 완화**를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 확대, 노후 주택 수리 및 청소·방역 등 지원, 전월세 계약 등 상담·정보 제공, 이사·중개 지원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해 '매우 만족·만족'의 비율(149명, 36.17%), '매우 불만족·불만족' 비율(92명, 22.33%)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'보통'(171명, 41.5%)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전체 응답자의 주거실태와 관련해 계약형태는 월세(252명, 61.17%), 전세(100명, 24.27%) 형태 비율이 높았으며, 주거지 형태는 다가구주택(100명, 24.27%), 연립·다세대주택·빌라(95명, 23.06%), 원룸형 주택(83명, 20.14%)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② 일자리

1인가구 전체 - 일자리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연령·상황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	180
2	지역 내 일자리 발굴	78
3	직업교육과 취업역량 강화	39
4	재취업·이직 및 경제활동 지원	70
5	특별히 필요 없음	37
6	기타	8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43.69%인 180명이 **연령·상황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**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지역 내 일자리 발굴, 재취업·이직 및 경제활동 지원, 직업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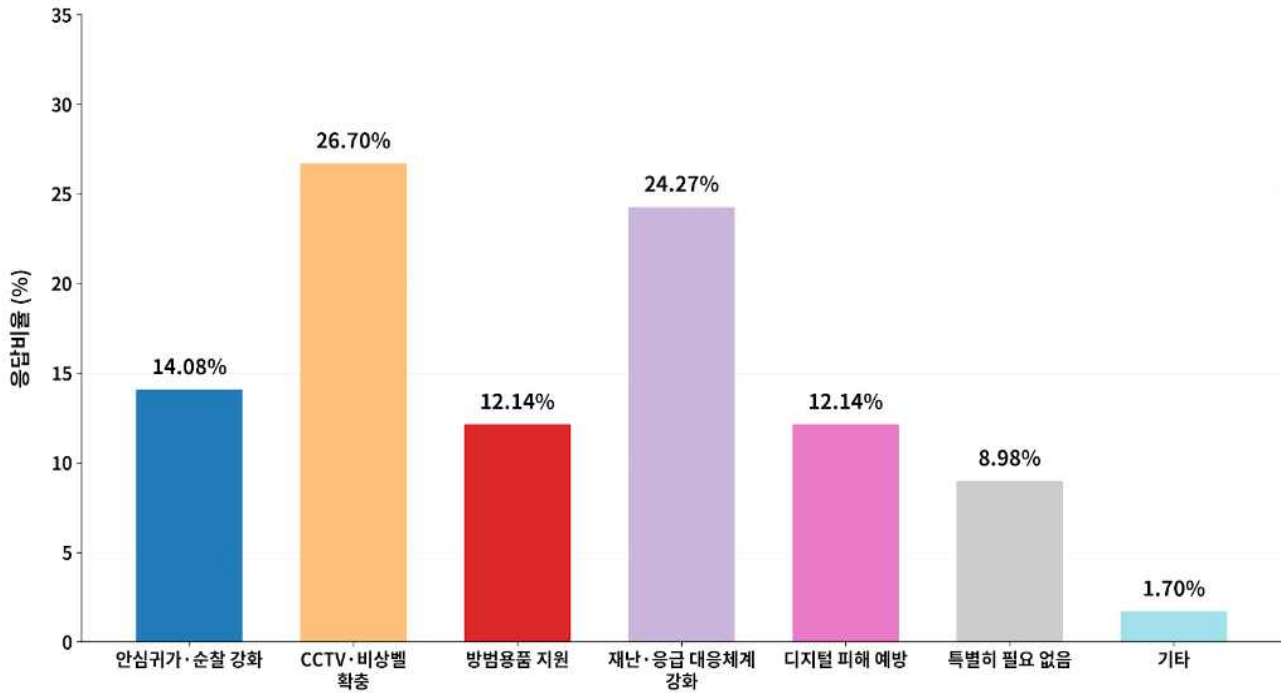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고용 형태와 관련해 정규직(142명, 34.46%), 비정규직(101명, 24.51%) 비율이 높았으며, 학생·은퇴·무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(68명, 16.5%)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전체 응답자 중 현재 본인에게 취업·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(150명, 36.4%)은 필요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(262명, 63.59%)보다 낮게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③ 안전

1인가구 전체 - 안전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안심귀가·순찰 등 생활안전 강화	58
2	CCTV·비상벨 등 시설 확충	110
3	방법용품 지원	50
4	재난·응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	100
5	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피해 예방	50
6	특별히 필요 없음	37
7	기타	7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26.7%인 110명이 **CCTV·비상벨 등 안전시설 확충**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재난·응급상황 대응 체계 강화, 안심귀가·순찰 등 생활안전 강화, 방법용품 지원,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피해 예방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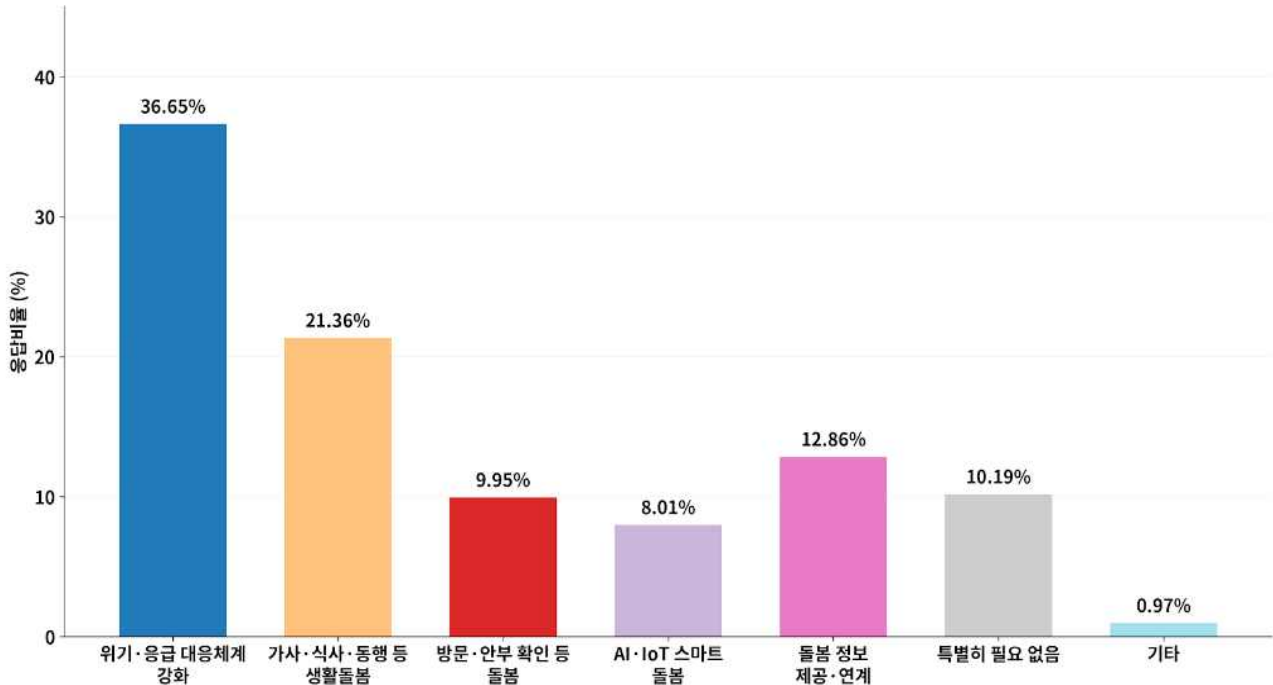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관련해 '매우 불안함·불안함'(92명, 22.33%) 응답 비율이 '안전함·매우 안전함'(111명, 26.94%) 응답 비율 보다 약간 낮았으나, 실제로 '보통'(209명, 50.73%)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④ 돌봄

1인가구 전체 - 돌봄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위기·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	151
2	가사·식사·동행 등 생활돌봄	88
3	방문·안부 확인 등 사람 중심 돌봄	41
4	AI·IoT 활용한 스마트 돌봄	33
5	돌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	53
6	특별히 필요 없음	42
7	기타	4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36.65%인 151명이 **위기·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**를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가사·식사·동행 등 생활돌봄, 돌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, 방문·안부 확인 등 사람 중심 돌봄, AI·IoT 활용한 스마트 돌봄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 참고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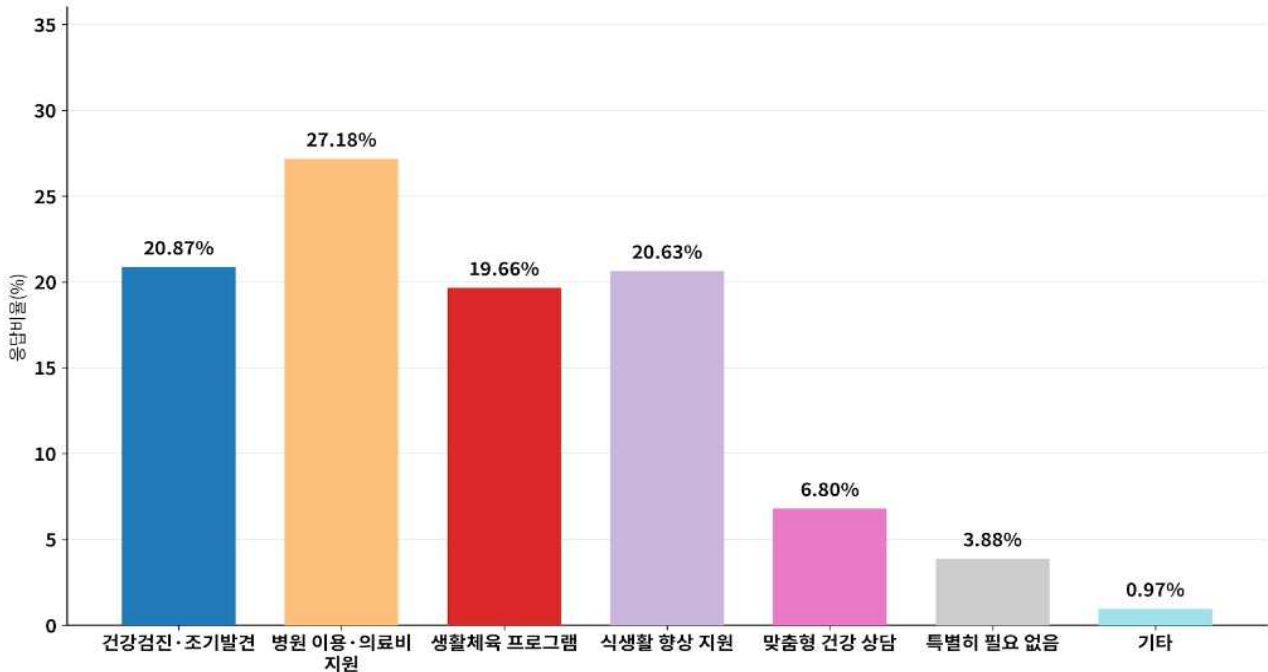
- 전체 응답자의 현재 돌봄지원 필요와 관련해 '자주 있음·가끔 있음'(173명, 41.99%) 응답 비율이 '거의 없음·전혀 없음'(239명, 58.01%) 응답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⑤ 건강

1) 신체건강

1인가구 전체 - 건강(신체)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건강검진 및 질병 조기 발견	86
2	병원 이용·의료비 지원	112
3	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	81
4	식생활 향상 지원 강화	85
5	맞춤형 건강 및 상담 제공	28
6	특별히 필요 없음	16
7	기타	4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27.18%인 112명이 **병원 이용의료비 등 의료지원**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건강검진 및 질병 조기 발견, 식생활 향상 지원 강화,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, 맞춤형 건강 및 상담 제공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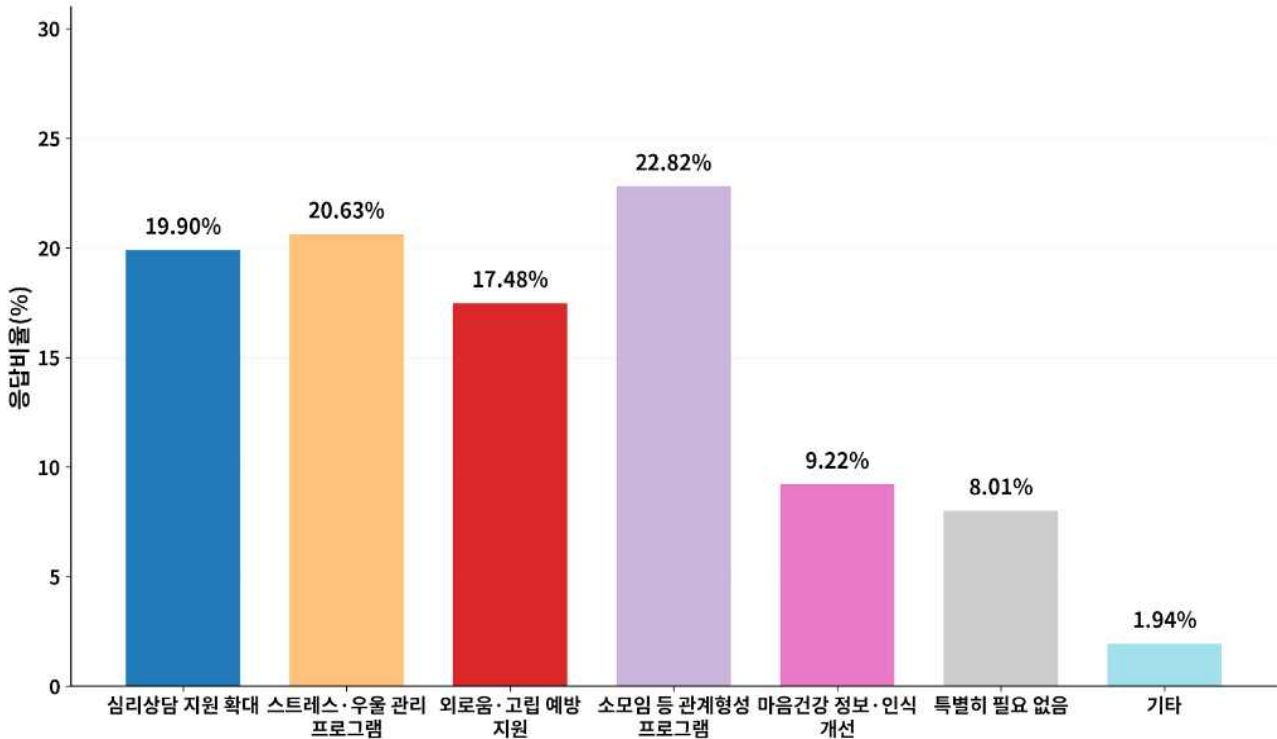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최근 6개월 간 신체건강상태와 관련해 '매우 나쁨·나쁨'(91명, 22.09%) 응답 비율이 ' 좋음·매우 좋음'(99명, 24.03%) 응답 비율보다 약간 낮았으나, 실제로 보통(222명, 53.88%)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2) 마음건강

1인가구 전체 - 건강(마음) 분야 정책수요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심리상담 지원 확대	82
2	스트레스·우울 관리 프로그램 운영	85
3	외로움·고립 예방 지원	72
4	소모임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	94
5	마음건강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	38
6	특별히 필요 없음	33
7	기타	8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의 22.82%인 94명이 **소모임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**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그 다음 우선순위로 스트레스·우울 관리 프로그램 운영, 심리상담 지원 확대, 외로움·고립 예방 지원, 마음건강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등을 순서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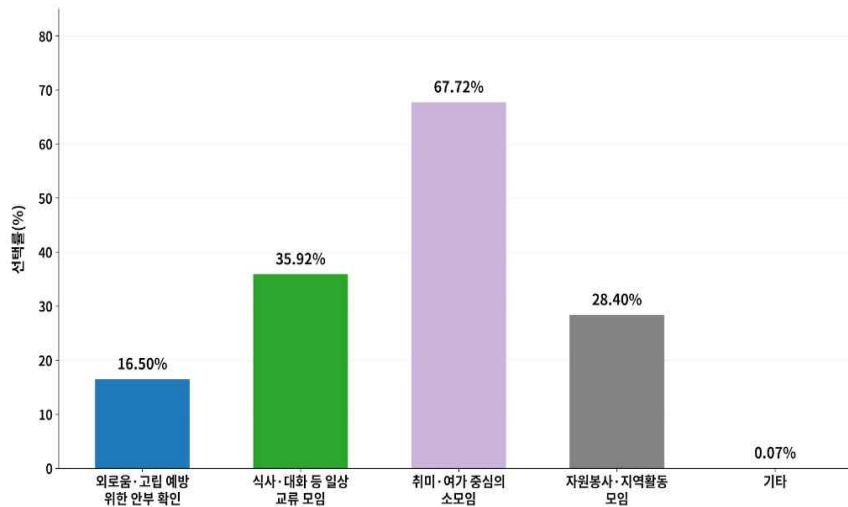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최근 6개월 간 마음건강상태와 관련해 '매우 나쁨·나쁨'(100명, 24.27%) 응답 비율이 ' 좋음·매우 좋음'(88명, 21.36%) 응답 비율보다 약간 높았으나, 실제로 '보통'(224명, 54.37%)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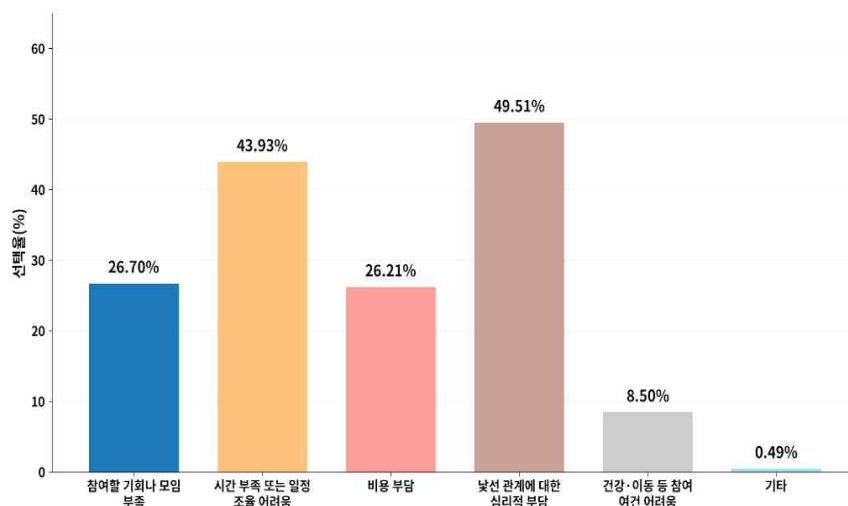
⑥ 관계

1인가구 전체 - 관계 분야(선호 활동 형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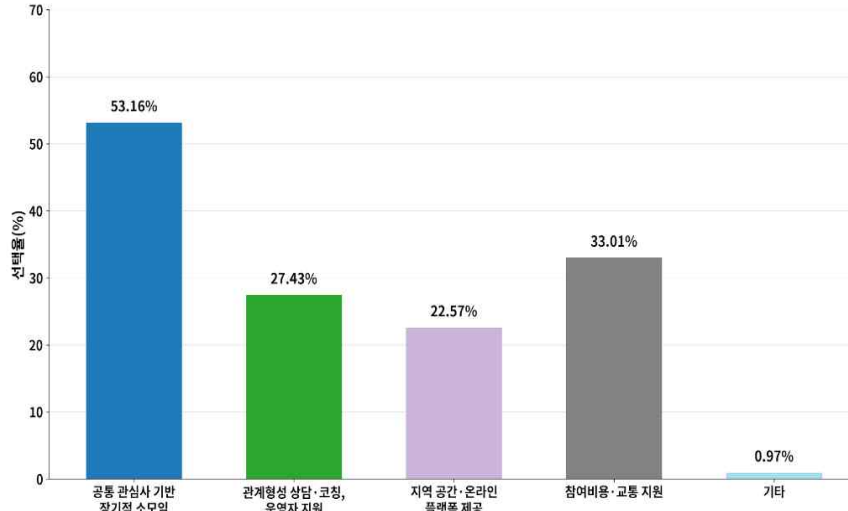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외로움·고립 예방 위한 안부 확인	68
2	식사·대화 등 일상 교류 모임	148
3	취미·여가 중심의 소모임	279
4	자원봉사·지역활동 모임	117
5	기타	4

1인가구 전체 - 관계 분야(관계 형성 저해 요인)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참여할 기회나 모임 부족	110
2	시간 부족 또는 일정 조율 어려움	181
3	비용 부담	108
4	낯선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	204
5	건강·이동 등 참여 여건 어려움	35
6	기타	2

1인가구 전체 - 관계 분야(관계 형성 지속 필요조건)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공통 관심사 기반 정기적 소모임	219
2	관계형성 상담·코칭, 운영자 지원	113
3	지역 공간·온라인 플랫폼 제공	93
4	참여비용·교통 지원	136
5	기타	4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 중 다수가 **관계 형성과 관련해 활동형태 및 지속 위한 필요조건으로 공통 관심사 기반 취미·여가 중심의 장기적 소모임**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와 더불어 **관계 형성의 저해요인**으로 낯선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요인으로 응답함
- 그 밖에 다음으로 원하는 관계 형성 활동형태로 식사·대화 등 일상대화 교류 모임, 자원봉사 및 지역활동 모임, 외로움·고립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, 관계 형성 저해 주요인 외 다른 요인으로 시간 부족 또는 일정 조율의 어려움, 참여할 기회·모임 부족, 비용 부담, 건강·이동 등 참여 여건 어려움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, 지속적인 관계 형성 위한 다음 필요조건으로 참여 비용·교통 지원, 관계 형성 위한 상담·코칭·운영자 지원, 지역 공간·온라인 플랫폼 제공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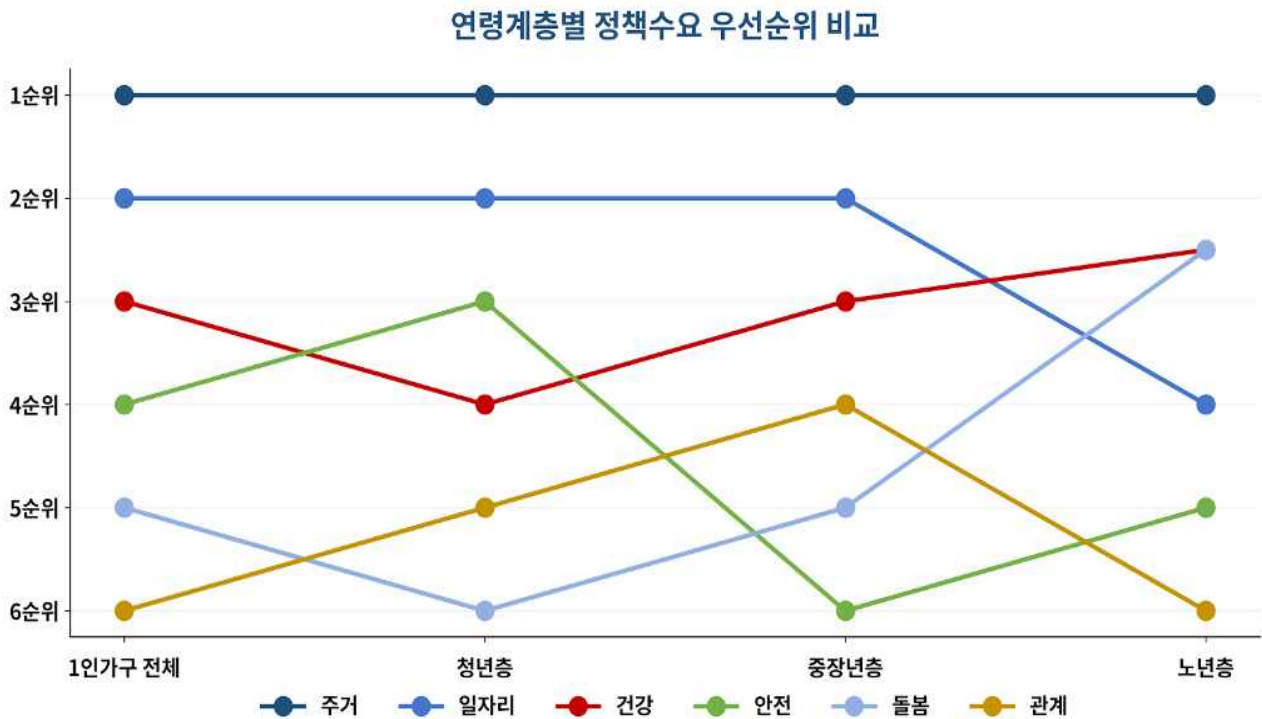
< 참고사항 >

- 전체 응답자의 평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해 '매우 자주·자주'(66명, 16.02%) 응답 비율이 '거의 없음·전혀 없음'(160명, 38.83%) 응답 비율보다 훨씬 낮았으나, 실제로 '가끔'(186명, 45.16%) 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관계형성 활동 참여와 관련해 '참여할 의향 있음'(116명, 28.16%) 비율이 '없음'(87명, 21.12%)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, 상황에 따라 '참여할 의향이 있음'(209명, 50.73%)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자세한 현황은 붙임 참조

○ 연령계층별 세부 수요조사 결과

① 전체 정책분야의 우선순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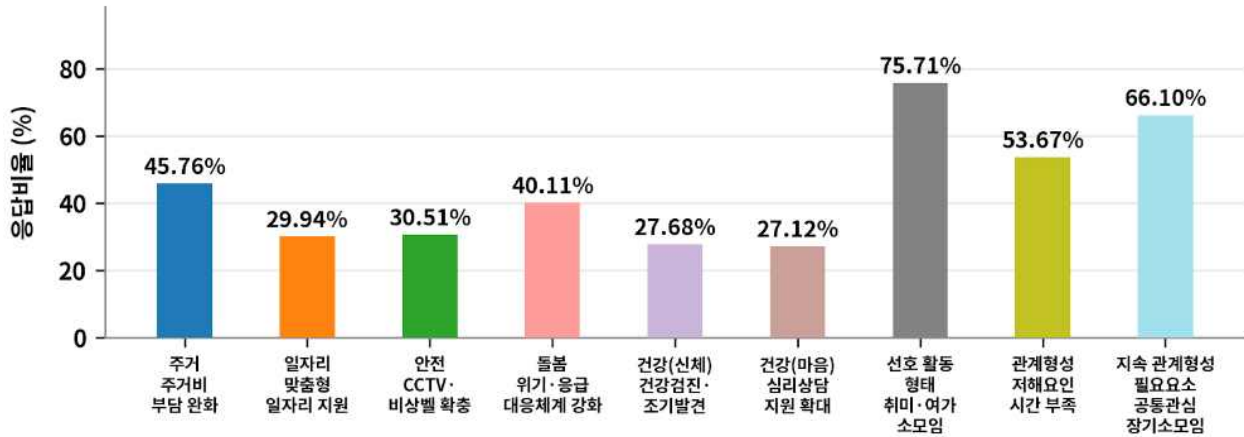
구분	1인가구 전체	청년층	중장년층	노년층
1순위	주거 (44.90%)	주거 (50.28%)	주거 (42.13%)	주거 (34.21%)
2순위	일자리 (21.84%)	일자리 (16.95%)	일자리 (28.43%)	돌봄, 건강 (18.42%) * 2순위로 동률
3순위	건강 (10.68%)	안전 (10.17%)	건강 (12.69%)	
4순위	안전 (6.31%)	건강 (6.78%)	관계 (5.58%)	일자리 (10.53%)
5순위	돌봄 (5.58%)	관계 (5.08%)	돌봄 (5.08%)	안전 (7.89%)
6순위	관계 (5.34%)	돌봄 (3.39%)	안전 (2.54%)	관계 (5.26%)

< 결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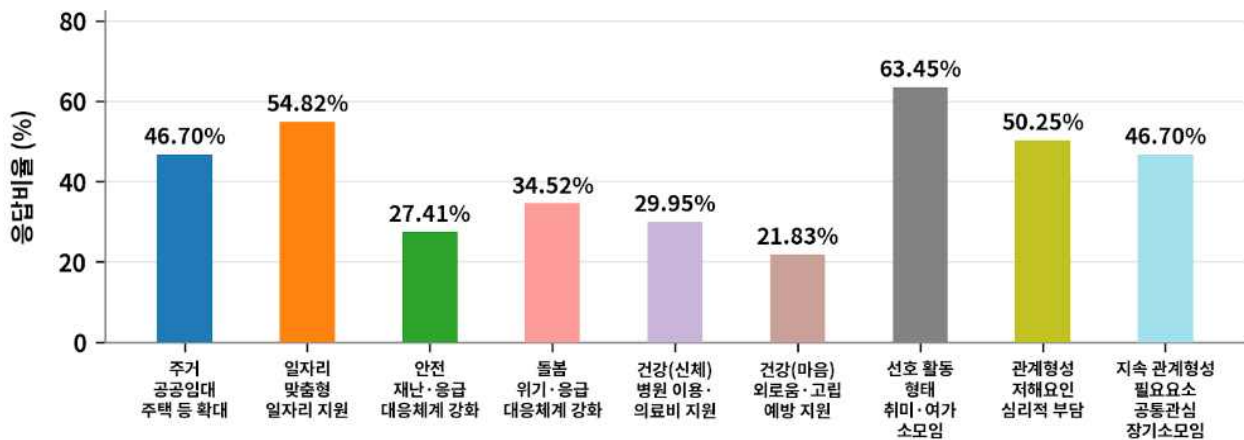
-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주거 분야를 1순위로 응답함
-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일자리 분야를 다음 우선순위로 응답함
- 노년층에서는 돌봄, 건강 분야를 다음 우선순위로 응답함

② 각 정책분야 내 추진방향 최우선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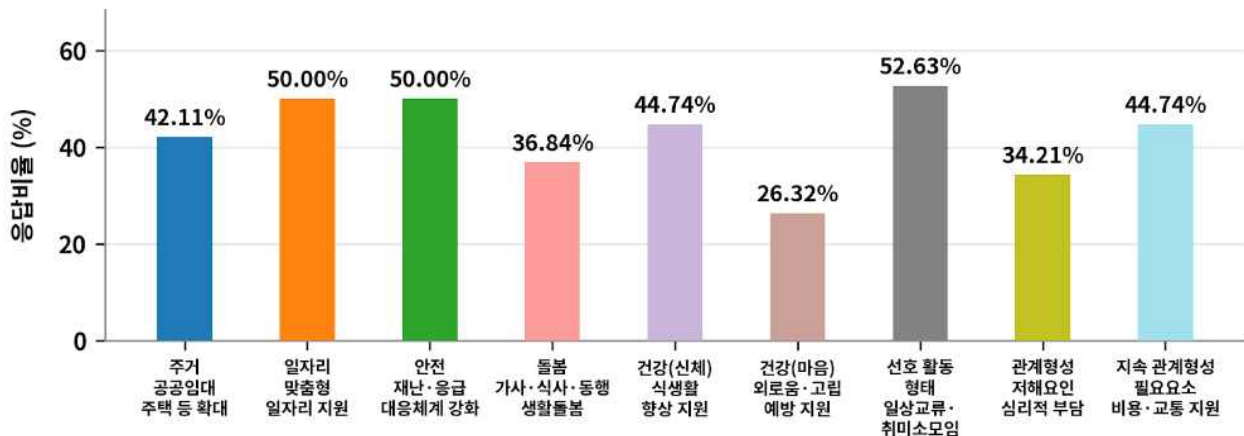
청년층 분야별 최우선 추진방향



중장년층 분야별 최우선 추진방향



노년층 분야별 최우선 추진방향



분야		청년층	중장년층	노년층
주거		주거비 부담 완화 (45.76%)	공공임대주택 등 확대 (46.70%)	공공임대주택 등 확대 (42.11%)
일자리		맞춤형 일자리 지원 (29.94%)	맞춤형 일자리 지원 (54.82%)	맞춤형 일자리 지원 (50.00%)
안전		CCTV·비상벨 확충 (30.51%)	재난·응급 대응체계 강화 (27.41%)	재난·응급 대응체계 강화 (50.00%)
돌봄		위기·응급 대응체계 강화 (40.11%)	위기·응급 대응체계 강화 (34.52%)	가사·식사·동행 생활돌봄 (36.84%)
건강	신체	건강검진·조기발견 (27.68%)	병원 이용·의료비 지원 (29.95%)	식생활 향상 지원 (44.74%)
	마음	심리상담 지원 확대 (27.12%)	외로움·고립 예방 지원 (21.83%)	외로움·고립 예방 지원 (26.32%)
관계	선호활동 형태	취미·여가 소모임 (75.71%)	취미·여가 소모임 (63.45%)	일상교류·취미소모임 (52.63%)
	관계형성 저해요인	시간 부족 (53.67%)	심리적 부담 (50.25%)	심리적 부담 (34.21%)
	지속 관계형성 필요요소	공통관심 장기소모임 (66.10%)	공통관심 장기소모임 (46.70%)	비용·교통 지원 (44.7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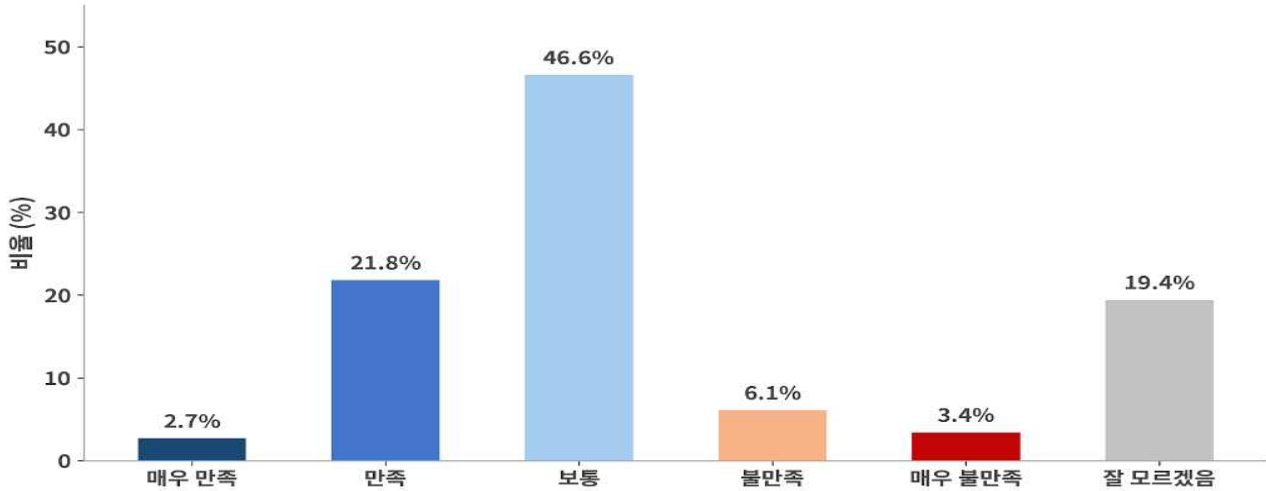
< 결과 >

- **주거 분야**에서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,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공공임대주택 등 확대를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응답함
- **일자리 분야**에서 모든 연령층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응답함
- **안전 분야**에서 청년층은 CCTV·비상벨 확충을,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재난·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응답함
- **돌봄 분야**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위기·응급 대응체계 강화를, 노년층은 가사·식사·동행 등 생활돌봄을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응답함
- **건강 분야의 신체건강** 관련 청년층은 건강검진·질병 조기 발견 지원을, 중장년층은 병원 이용·의료비 지원을, 노년층은 식생활 영양 지원 최우선 추진방향으로 응답함
- **건강 분야의 마음건강** 관련 청년층은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,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외로움·고립 예방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응답함
- **관계 분야의 관계형성 활동형태** 관련 모든 연령층이 취미·여가 소모임을 제일 원하며, 특히 노년층은 일상교류도 함께 원하는 것으로 응답함
- **관계 분야의 관계형성 저해요인** 관련 청년층은 시간 부족,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낯선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요인으로 응답함
- **관계 분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 필요조건** 관련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공통 관심사 기반 장기 소모임을, 노년층은 비용·교통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함

1인가구 정책·서비스 평가 및 필요 정책 영역 진단

○ 전체 1인가구 지원 정책·서비스 전반적 평가

1인가구 지원 정책·서비스 전반적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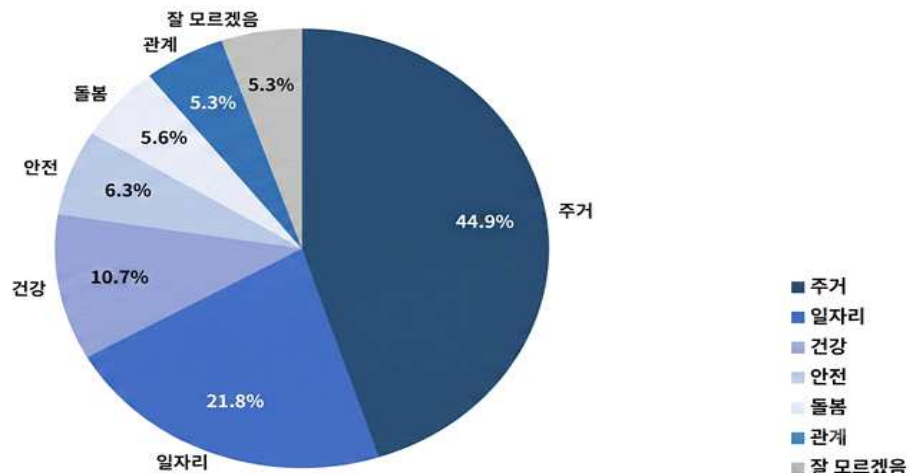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매우 만족	11
2	만족	90
3	보통	192
4	불만족	25
5	매우 불만족	14
6	잘 모르겠음	80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 중 '매우 만족만족'(101명, 24.51%)이 '불만족·매우 불만족'(39명, 9.46%)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
- 그러나 '보통·잘 모르겠음'(272명, 66.01%) 응답이 제일 많아 정책·서비스 전체 체감 만족도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음

○ 1인가구 지원 정책·서비스 우선 추진 분야

1인가구 지원 정책·서비스 우선 추진 분야



답변	내용	인원 (명)
1	주거	185
2	일자리	90
3	안전	26
4	돌봄	23
5	건강	44
6	관계	22
7	잘 모르겠음	22
8	기타	0

< 결과 >

- 전체 응답자 중 44.9%가 **주거 분야**를 최우선 추진 분야로 응답함
- 그 다음으로 일자리 분야도 21.84%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, 돌봄, 건강, 관계 분야 등은 주거·일자리 분야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설문 문항별 응답결과 요약표

조사항목	응답 결과(%)
① 1인가구 지원정책 인지도	어느 정도 알(43.45) > 들어봤으나 모름(42.23) > 전혀 모름(11.41) > 매우 잘 알(2.91)
② 서비스 이용 경험	없음(57.28) > 있음(29.37) > 잘 모르겠음(13.35)
③ 서비스 이용 만족도 (이용자 기준)	만족(46.28) > 보통(30.58) > 매우만족(22.31) > 매우불만족(0.83) > 불만족(0.00)
④ 정보 접근경로 (복수응답, 상위)	구청·동주민센터(31.55) > 홈페이지(20.15) ≈ SNS(19.90) ≈ 카카오톡(19.90)
⑤ 주거 최우선 추진방향	공공임대 확대(39.08) > 주거비 완화(35.92) > 수리지원(11.65) > 상담정보(4.85)
⑥ 일자리 최우선 추진방향	맞춤형 지원(43.69) > 지역내 발굴(18.93) > 재취업·이직(16.99) > 직업교육(9.47)
⑦ 안전 최우선 추진방향	CCTV·비상벨(26.70) > 재난응급대응(24.27) > 안심귀가순찰(14.08) > 방범용품(12.14)
⑧ 돌봄 최우선 추진방향	위기응급대응(36.65) > 생활돌봄(21.36) > 정보연계(12.86) > 불필요(10.19)
⑨ 건강(신체) 최우선 추진방향	의료비 지원(27.18) > 건강검진(20.87) > 식생활 지원(20.63) > 체육프로그램(19.66)
⑩ 건강(마음) 최우선 추진방향	소모임(22.82) > 스트레스관리(20.63) > 심리상담(19.90) > 고립예방(17.48)
⑪ 관계형성 선호활동(복수응답)	취미·여가 소모임(67.72) > 자원봉사·지역활동(28.40) > 일상교류모임(35.92)
⑫ 사회적 고립감 인식	가끔(45.15) > 거의 없음(31.07) > 전혀 없음(7.77) > 자주(9.95) > 매우자주(6.07)
⑬ 관계형성 참여의향	상황에 따라(50.73) > 참여 의향 있음(28.16) > 참여 의향 없음(21.12)
⑭ 정책·서비스 전반적 평가	보통(46.60) > 만족(21.84) > 잘 모름(19.42) > 불만족(6.07) > 매우만족(2.67)
⑮ 우선 추진분야	주거(44.90) > 일자리(21.84) > 건강(10.68) > 안전(6.31) ≈ 돌봄(5.58) ≈ 관계(5.34)

V

정책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

 주요 시사점

○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연령계층별 홍보 전략 이원화 필요

- 조사 결과, 1인가구 정책의 인식도는 낮으나,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전체적으로는 온라인(구청 홈페이지, 카카오톡·SNS), 오프라인(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) 모두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나, 온라인을 주로 활용하는 비율이 많은 청년층과 오프라인을 주로 활용하는 비율이 많은 중장년·노년층의 특성을 감안해,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 이원화가 필요함

○ 연령계층별 맞춤형 정책 수립·서비스 연계 필요

- 조사 결과, 연령계층에 따라 각 분야별 최우선 추진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
- 이를 토대로,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며, 특히 연령계층별 관악구 1인가구 구성 비율이 비대칭적인 특성을 감안해 균형있는 정책 수립·서비스 연계가 필요함

○ 노년층 돌봄·건강 통합대응 필요

- 노년층은 우선 추진분야 2순위에 '돌봄'이 진입(18.42%, 건강과 동물)하고, 서비스 이용경험률(52.63%, 전 연령 최고)에 비해 '만족 이상' 응답(15.79%, 전 연령 최저)이 가장 낮아, 이용 후 체감 품질 개선이 시급함

○ 청년층의 높은 안전 불안 인식에 대한 대응 필요

- 안전 불안 인식이 청년층에서 가장 높고(청년 32.77% vs 전체 22.95%), 우선추진분야에서도 청년만 유일하게 '안전'이 3순위(10.17%)로 나타남
→ 청년 밀집지역 안전 인프라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

2027년 분야별 정책 반영 방향

분야		주요 조사결과	정책 반영 방향
주거		전 계층 공통 1순위. 청년 주거비 완화(45.76%), 중장년·노년 공공임대확대(46.70%·42.11%)	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중장년·노년 공공임대 정보·서비스 연계 강화
일자리		중장년(54.82%)·노년(50.00%) 맞춤형 지원 쏠림, 청년 재취업·이직 지원(22.60%)도 유의미	연령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·지원 연계 강화
안전		청년 시설확충(30.51%), 노년 응급대응체계(50.00%) 압도적	청년 밀집지역 생활안전 지원 강화 및 노년층 응급대응체계 연계 확대
돌봄		노년층 유일하게 생활돌봄이 최우선(36.84%), 돌봄필요경험 68.42%(최고)	노년층 생활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연계 및 지원 강화
건강	신체	노년 식생활지원 44.74%(압도적), 청년 건강검진 27.68%	생애주기별 건강수요를 반영한 신체건강 지원 세분화 (청년: 검진, 노년: 영양)
	마음	청년 심리상담(27.12%), 중장년·노년 고립예방(21.83%·26.32%)	연령계층별 정신건강 및 고립예방 지원 강화 (청년 심리상담 접근성 강화, 중장년·노년 고립예방 프로그램 확대)
관계		취미·여가 등 공통관심사 장기 소모임(청년·중장년), 심리적 부담(중장년·노년), 일상교류·교통 지원(노년)	고립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사업에 관계형성 기능을 결합한 사업 설계 및 지속적 운영 방안 검토

VI 행정 사항

부서 및 동주민센터: 정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·활용

스마트정보과: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

붙임 각 분야별 참고사항 세부현황 자료 1부. 끝.